

‘의대 증원’ 지역인재전형 확대 최선

광주시교육청, 호남권 대학들과 지역 80% 이상 선발 협의 계획 수험생들 수능 최저기준·정시 수능등급 확보 등 철저 대비 강조

광주시교육청은 의대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80%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호남권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에서 전남대 의대 200명, 조선대 의대 150명, 전북대 의대 200명, 원광대 의대 150명을 확정했다. 이들 대학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호남권 출신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대학들에 지역인재들의 문화를 더 넓혀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졸업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3 재학생은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등급 확보를 위한 촘촘한 계획과

함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고3 재학생들의 진학지도와 수능시험 대비 방안으로 학생 중심 자율적·자생적 학습 동아리 지원,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한 교과별 멘토·멘티 활동 확대, 수능 기출문제 분석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전국단위 모의평가 출제·검토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능 대비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개발·보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대입결과 분석 진학지도 자료집과 진학상담 프로그램 보급,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한 고교 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강화,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운영, 광주진로진학박람회 대입 지원 계열별 설명회 운영 등도 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꿈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광주교육의 힘이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 열풍에 휩쓸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하고 봉사할 사명감을 가진 광주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촘촘히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꿈 모두 소중하다”며 “다양한 실력으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진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와 경북지역 5개 대학교에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대구 출신 50%, 경북 출신 50% 비율로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지방대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22일 각 대학 총장에게 보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몽골교육대학교를 방문한 전남대 방문단.

전남대, 해외 네트워크 확장 광폭 행보

중국·일본·베트남 이어 몽골 6개 대학과 교류협력 강화

전남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 제고와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몽골을 방문해 6개 현지 대학들과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민석 글로벌 대외협력처장, 이명규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대 방문단은 교류대학인 몽골 국립대학교, 몽골 민족 대학교,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뿐만 아니라, 신규 교류를 위해 몽골과학기술대학, 몽골 교육대학교, 몽골 국립의과대학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몽골은 인구대비 교육열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국가로, 전남대 방문단은 몽골 현지 대학 관계자와 만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연구 역량을 확인했다.

몽골대학들도 전남대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몽골국립대학교는 오는 6월 총장이 직접 전남대를 답방하고, 학생과 교수 등 인적 교류에서부터 학사, 연구분야에 이르기까지 두 대학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몽골 국립의과대학은 기존에 맺어왔던 두 대학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대학으로까지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해 9월 중국 운주대학교에 국제캠퍼스 추진을 논의하고, 같은 달 베트남 의과대학과는 바이오 인재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일본과 교환학생 확대와 공동연구에 대한 협의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의대 80% 이상 ‘수시’ 선발 전망

수시는 지역인재·정시는 전국단위 정시 이월 증가시 수능 최저 완화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모집정원 확대 발표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천71명이었다.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52.9%)이다.

지역인재전형 1천71명 가운데 79.4%인 850명은 수시모집 선발 예정이었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고 3 수학 1등급 인원이 의대 전체 모집정원의 9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는 대학수능능력시험 반영 비중이 큰 정시모집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학생들은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대부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단위 선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지역인재전형이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80%를 넘어설 경우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1천758명에 이를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대에서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현재보다 많아질 수 있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의대 합격선 변화 추정				
1) 의대 합격 가능권 변화 추정(정시 합격점수 기준)				
구분	모집인원	현재 합격권	전체 대비	인원
서울고	4,841	2,200	45.4%	3,802
정시합	3,522	348	9.9%	803
※ 2023학년도 여대가 발표 70%컷 기준 추정				
2) 모집정원 변화시 합격점수 변화 추정				
구분	현재 합격권	2,000명 증원시	감소	증가
국수합 백분위	285.9	281.4	-1.5	0.4
과목 평균 백분위	95.3	93.8	-1.5	1.5
※ 2023학년도 여대가 발표 70%컷 토대 추정				
5. 의대 정원확대에 따른 의대 준비생 규모 추정				
구분	2024학년도	2,000명 증원시 (2025학년도)	증감	비율
의대 준비생(추정)	9,532	15,851	6,319	66%
※ 2024학년도 수시 전국 39개 의대 전국 지원자수 토대, 2015학년도 이후 최대 공급량 따른 지원자수 추세 반영				
6. 이과 학생수 대비 의대 준비생 비율				
이과 학생수	2024학년도	2,000명 증원시	비율	비율
232,966	4.1%	6.8%		
※ 이과 학생수는 2024학년도 수능 과탐 접수자 기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수능 시행 이후 의과대학 수시→정시 이월 인원은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각 52명, 13명 전원, 24명이 비수도권 선발 인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간 중복합격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

서 최대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이다. 결국 수시 내신 합격선도 내려갈 수 있다”라며 “반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의대 지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유학생 유치 ‘세계 속 대학’ 발돋움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 총장 등 초청 방문 캠퍼스 투어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해외 대학들과 돈독한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어학당을 통한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도 적극 도우며 ‘세계 속 대학’으로 발돋움한다.

동강대는 지난 19~24일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 응우옌 쯔영 지안 총장을 비롯한 8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응에 안 무역관광대 방문은 동강대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데 이은 초청 행사다. 방문단은 첫 날인 19일 동강대 캠퍼스 투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했다.

동강대학교 역사관을 비롯해 도서관, 원격교육 지원센터, 글로벌 존, 부서관학군단 RNTC와 외식조리제빵과, K-뷰티아트과, AI미래자동차과 자율주행, 건축과 등 각 학과 실습실과 기숙사를 둘러봤다.

또 향후 두 대학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교환 학생, 학점 교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응에 안 무역관광대는 1996년 개교해 응에 안 성의 관광, 호텔 경영, 상업 경제학, 서비스 비즈니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강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현지 대학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쳐왔다.

이번 응에 안 무역관광대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응에 안 성에 위치한 한베산업기술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llege) 호반담 총장이 동강대를 방문해 유학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한베산업기술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1998년에 설립한 기술 교육기관으로 재학생은 3천 여명이다. 여기에 동강대는 올해부터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도우미로 나섰다.

동강대 한국어학당 봄 학기(3~6월)에는 베트남 학생 22명이 입학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